

# 미원주민 선교주일

헌금 전 이야기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 미원주민 선교주일

## 헌금 전 이야기

개 교회는 어느 주일이든 미원주민선교주일로 지킬 수 있지만,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인 올해 4월 18일에 특별 헌금과 함께 이날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자료는 예배 중 헌금의 도입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헌금 전 이야기를 각 교회의 실정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ResourceUMC.org/NAMS](http://ResourceUMC.org/NAMS)에서 함께 제공된 자료들을 확인하세요.

2016년 총회결의문집(#3321)에 따르면,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미원주민선교주일을 지속해서 후원한 결과, 100명 이상의 미원주민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장로 목사와 집사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이들은 지역 교회, 연회, 총회 기관의 지도자 위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체**로키 및 오지브웨 혈통인 저스틴 월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미원주민 출신의 한 목회자와 연결되어 소명에 응답하도록 도전받았을 때, 그녀는 6살배기와 젓먹이 아기 하나를 둔 싱글맘이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의 게렛 신학교에 입학 후 두 번째 주부터 그녀는 신학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은 그동안 그녀가 경험해 온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그녀의 질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게렛 신학교는 그녀의 어린아이를 위한 24시간 탁아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24시간 내내 아기를 돌봐주면서 매번 젓 먹는 시간마다 그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신학교 친구 중 많은 이들은 엄청난 지원과 목회적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펼쳐진 도움의 손길과 그녀의 상황을 향해 불어넣어진 평화의 숨결은 큰아들이 회복하는 내내 계속되었고, 그 덕분에 월슨의 신앙 여정이 새로운 형태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녀의 원주민 정체성과 일치하는 신학적 명료성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월슨은 현재 오클라호마주 놀만의 놀만 퍼스트 아메리칸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원주민 목회자

# 미원주민 선교주일

## 헌금 전 이야기

들을 위한 교역자 자격과정을 신설하기 위해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과정은 미원주민 신학과 관련된 과목을 포함하면서, 참여자들이 전통, 문화, 종교를 연합감리교 목회 안에 아우를 방법들을 모색하게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교역자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도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미원주민들은 더는 그들의 문화와 기독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린 손과 마음으로 월슨은 그들에게 평화의 숨결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미원주민선교주일 선교헌금은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지킬 신학생들이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지역사회를 섬길 신선하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지킬 신학생들이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는 데 쓰입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고 있는 교회들에 힘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UMCgiving.org/giveNAMS](http://UMCgiving.org/giveNAMS)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2012년 총회에서 있었던 회개의 표시로 드리는 성찬 예배 순서에서 사용된 기도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강이 흘러가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래를 듣게 하소서.

바람이 불듯, 우리가 주의 속삭임을 듣게 하소서.

풀이 흔들리듯,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게 하소서.

독수리가 날아오르듯, 우리의 생각을 차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열어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강화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모든 부서진 곳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